

‘코로나19 불똥’ 내년 정부 예산 확보 비상

대면접촉 금지에 중앙부처 담당자 면담 불가 광주시·전남도 지역현안 설득 방법 없어 ‘곤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불똥이 일선 지자체의 내년 정부 예산 확보 활동에까지 튀었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침에 따라 대면접촉이 사실상 금지되면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만나기 어려워졌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사업자료를 관련 부

처에 보내고 온라인과 전화 등으로 지역 현안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2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국고확보 활동을 온라인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정부 내 일부 부처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데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

기’ 특별지침에 따라 중앙부처 접근이 사실상 금지됐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대면접촉을 해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에서 코로나19로 부처 방문조차 어려워지자 대응전략 짜기에 골몰하고 있다.

특히 3~4월은 정부 예산편성 체계상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때로, 지자체들이 해당 부처에 국고 건의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그동안은 지자체 예산담당 관계자들이나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해당 예산과 관련

이 있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과 만나기 위해 세종시에 거주하다시피 하면서 대면접촉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이같은 대면접촉이 제한되자 지자체마다 이를 대체할 새로운 국고확보 활동방식 찾기에 나섰다. 전화 외에는 뚫을 수단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대면이 힘든 만큼 온라인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대면접촉을 최대한 피하면서 4월께 신규사업 보고회를 열고 해당 실·국과 내년

국고 예산 사업을 점검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일찌감치 국고지원 사업 발굴에 나서 건수와 액수를 정했지만, 상황은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어렵다.

전남도는 전년 대비 5,258억원 늘린 237건 2조3,160억원을 내년 국고 지원사업으로 정하고 실·국별 주요 현안사업을 해당 중앙부처에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방문 설명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부처에 사업자료를 사전에 보내고, 수시로 온라인이나 전화 등을 통해 설명하도록 했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 보좌관들과의 소규모 미니 간담회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들은 대면접촉을 금지한 코로나19로 자칫 지자체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못한 채 정부 예산안이 세워질까 우려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얼굴을 보지 않고 전화로만 지역상황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다들 경험해보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에서 만큼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지만, 해결책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안 편성은 다음달까지 지자체 의견을 받아 해당 부처가 예산안을 세워 5월 말 기획재정부에 남기면 6-8월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황애란·김용현 기자

여 “말보단 행동 필요”...과감한 ‘금융안정화’ 대책

마스크 협조 약국 지원법 다음 국회서 최우선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의 경제·금융 피해 최소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에서 비상경제회의와 관련,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기존 예산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전례 없는 수단을 동원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경제피해 범위와 정도가 시간이 흐를수록 확대돼 추가적 지원조치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다른 부분보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금융시장에 대한 과감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사국인 만큼 대응방식과 규모도 시장 예상과 통상적 수준을 넘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말보다 행동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위원회 회의에서 이인영 총괄본부장(왼쪽부터)이 ‘국민 안심마스크’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신중함보다 과감함이 필요하다. ‘선조치 후검토’의 자세로 속도감 있는 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관계당국에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필터를 교체할 수 있어 재사용이 가능한 ‘국민안심마스크’를 착용했다.

박홍근 마스크 대책 TF(태스크포스)

단장은 “마스크 생산량 확대정책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필터를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할 방안을 찾고, 하루 300만~400만장 보건의 마스크 생산을 위해 설비를 확충하고 업계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또 “마스크 구매 5부제의 안정적 정착

을 위해 보여준 약사들의 솔선수범과 헌신에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조만간 공적 마스크 부가세 면제, 사업소득세 산정 시 비과세 적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등 약국에 대한 인센티브 법률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마련하고 다음 국회 때 최우선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여수-권석환, 순천-오행숙, 함평-최종준
민주, 재보선 3곳 후보 공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지방선거 재·보선 후보경선결과 여수시의원(나선거구) 재·보선 후보자로 권석환(44·행정사) 후보를 공천했다고 24일 밝혔다.

순천시의원(사)과 함평군의원(가) 재·보선 후보자로는 오행숙(60·전 순천시의원), 최종준(55·농업) 후보가 선정됐다.

경선은 3곳 모두 100% 권리당원 여론조사로 이뤄졌으며 여수시의원 재·보선 후보는 3인 경선, 순천시의원·함평군의원 경선은 2인 경선으로 실시됐다.

권 후보는 도당 청년부위원장·여수갑 청소년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오 후보는 전 순천시의원과 전 주암발전추진위 공동위원장을, 최 후보는 전 농업경영인 함평군연합회장과 전 순분중학교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정근산 기자

‘재난기본소득’ 내주 비상경제회의서 결론

‘선별지원’ 무게...지급범위·방식·재원 등 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재난소득’ 지급문제가 다음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볼론 아직 청와대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중대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고려하면 어

떤 방식으로든 현금성 지원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내부의 기류는 소득 하위계층 등 ‘필요한 곳’에 우선 지원하는 방식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전격발표한 만큼 국민 100%에 지급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일부에서 들

러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의 모두발언에서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방안에 대해 재정소요를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의 ‘신속 결론’ 지시가 명백하게 나온 만큼 결국 도입 쪽으로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관심이 쏠린 지급범위나 지급액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리고 있어 추후 논의를 더 거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에 대해 ‘선별적 우선 지원’을 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현금성 지원’ 도입이 결정될 경우 지급 방식은 곧바로 사용되는 지역화폐 등을 활용, 경기 활성화에 실질적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재원대책에 대해서도 청와대 측에서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재원 일부는 지자체의 기금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민주당 광주시당 선거대책위 출범

“미래통합당 심판·광주정치 경쟁체제 구축”

민주당 광주시당이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제21대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24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선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제21대 총선은 적폐세력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함을 심판하고, 광주정치의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장원섭 전 통합진보당 사무총장을 비롯해 노동, 농민, 빈민, 여성, 청년, 종교 등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선거가 위장 비례정당, 품수정당간 대결로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며 “거대 양당에 의해 한국정치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다. 모든 위장 비례정당은 즉각 해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기득권 세력과 전혀 다른 계급 기반, 새로운 정치철학을 가진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에서는 비례대표 1번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김해정 후보와 서구갑 김주업 전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북구를 윤민호 광주시당 위원장, 광산갑 정희성 전 민노총 광주전남본부장 등 4명이 총선에 출마했다. /황애란 기자

Amore
단독 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웨딩

Lobby
넓은 로비, 깔끔한 인테리어로 품격있는 만남의 공간

Fedes
돔 형태로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을 주는 웨딩홀

Parking
넓은 주차장 완비

제아트웨딩컨벤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당신의 특별한날을 아름다운 기억으로 빛나게 해드리겠습니다.

결혼식 / 피로연 / 가족행사
기업행사 / 모임행사

광주광역시 서구 풍서자로 269.
제아트웨딩컨벤션 대표전화 062) 369-5200 / 010-4515-5203